

Ⅲ. 유학과 역사학

1. 역사개념의 출현
2. 유학과 역사학의 관련
3. 삼국의 유학
4. 삼국의 역사편찬

Ⅲ. 유학과 역사학

1. 역사개념의 출현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은 자연의 변화와 밀접히 연결되었다. 그들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평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었고 이런 평상적인 경험은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전승되었다. 그러다가 인간의 활동이 획기적으로 다양해지게 되는 때는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그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졌으며, 사회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될 정도로 분화되었으며, 다른 집단과의 전쟁도 일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일상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인간은 이를 기록해두는 문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상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청동기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문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문자를 필요로 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당시 자연에 대한 제사날을 기록하기 위하여, 농사를 위한 계절과 자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또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남기기 위한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청동기문화는 외부로부터 전래되었다. 이는 중국계통의 것이 아니라 북방 스키타이계통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청동기문화가 수용된 후 오랜동안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독자적인 문자가 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문자가 생기는 과정에서 중국의 한자문화가 철기문화와 함께 전래함으로써 무산된 것인지 아니면 문자가 생기기 전에 한자가 도래하였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에 조각된 울주 반구대의 암각벽화에는 분명히 기호표시가 보이고 있음을 통하여 문자생성의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유한 문자가 생기려는 단계인 청동기시대 중기에 철기문화가 중국으로부터 수용됨과 더불어 중국의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한자의 전래로 인하여 독자적인 문자의 생성이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기록의 필요요건은 문자이다. 고유한 문자를 발명해 냄에 실패한 한민족은 중국의 한자를 수용하여 썼다. 한자는 기원전 4세기경에 중국의 철기문화의 수용과 함께 고조선에 전래되었다고 생각된다. 고조선의 八條禁法이 비록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법조문이 형성되었다면 문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자의 보급은 漢四郡이 설치될 무렵 이후로부터 고구려가 건국된 기원 전후로 여겨지며, 신라의 경우 5세기 말엽의 迎日郡 冷水里 비문을 통하여 3~4세기 전후에는 한자의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여겨진다. 백제의 경우 한자의 보급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한사군을 통하여 신라보다 먼저 한자를 수용하였다고 판단된다. 3세기 후반인 고이왕 때에 율령제가 도입된 것으로 보아 2세기말에는 한자의 사용이 보편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역사기록의 또 하나의 요건은 冊曆이 보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역사기록에는 년과 달, 날짜가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국 초기 책력의 수용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중국의 책력이 수입되어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역사기록을 남기는 정치적 배경으로는 정치체제의 확립과 왕권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왕권의 강화는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영토를 확장하면서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인근의 다른 부족을 많이 정복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하면서 강화된 왕권에 의하여 자신의 업적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기록을 남기지 못한 선사인들도 역사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역사개념은 자연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의식주 생활이 자연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점과 아직 자연에 대한 무지 등이 자연중심적 역사관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즉 풍흉은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고 이는 자연신의 작용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생각하였다. 부여 등에서 흉년이 들면 왕을 죽였다는 《三國志》魏書 東夷傳의 기록은 왕이 이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왕이 自然神¹⁾을 경건하게 숭배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 결과를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파악하지 않고 자연의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믿었다. 이 점이 바로 선사시대인들의 역사관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들의 역사내용은 축적된 경험을 후세에 전달한다는 의미를 또한 가졌다. 그러나 이는 일상생활상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역민들의 共同祭祀, 자연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의 영웅이었던 인간의 출생과 계보가 주를 이루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공통적인 특질을 국가마다의 전국민이 참여하는 제사와 그리고 음주가무로 본 것은 부족마다의 공동제사가 얼마나 중시되었는가를 알게 하여준다. 선사시대의 역사내용은 구전되었음으로 설화적인 성격이 강하다. 설화이기 때문에 장소와 일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구전되는 동안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였다. 이 점은 기록을 정확히 남기는 역사시대의 기록과 구별되는 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역사의식을 찾을 수 있는 자료로는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檀君神話를 들 수 있다. 이 단군신화에서 天帝의 아들이 내려와 동물을 인간으로 만드는 창조적 내용과 썩과 마늘을 먹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원시사회 성년식의 모습, 농경의 중요성, 신에게 기원하는 고대의 종교적 행위, 제정일치사회의 모습, 토탑사상, 도읍의 중시사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천제가 인간생활을 보살펴 주고 있으며, 이를 인간이 숭배한 사상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 신화는 시조가 모두 천제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천제에 대한 구체적 신앙은 고구려의 경우 태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²⁾

1) 이들이 숭배한 自然神 중 최고의 신은 하늘님이었고, 태양·산천과 바다·강 등의 자연신이 있었다.

2) 〈廣開土大王陵碑〉와 〈牟頭婁墓誌銘〉에 보이고 있다(盧泰敦, 〈高句麗의 歷史와 思想〉, 《韓國思想史大系》2—古代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18~19쪽).

그리고 천제와 地神의 결합을 보여주는 내용이 東明聖王신화에서 찾아진다. 천제의 아들과 河伯女의 결합을 들 수 있다. 고구려에서 말기까지 시조신과 하백녀인 국모신, 그리고 천제에 대한 제사와 신앙이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³⁾ 10월의 국중대회인 동명제에는 국왕이 참여하여 직접 제사를 지냈다.

2. 유학과 역사학의 관련

역사학이 반드시 유학과 관련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사의 기록이나 편찬이 유학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단지 기록의 필요성에서 역사의 기술이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고대의 역사기록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유학자라고 할 수는 없어도 그들이 기록한 문자는 한자였으므로 역사를 기술한 사람들이 한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한문적 소양에는 유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들어 있었을 것임은 당시 중국의 문화적 성격으로 보아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의 한자문화가 전래할 때에 유학의 경서, 그리고 중국의 발달한 역사서 즉 《左傳》, 司馬遷의 《史記》, 班固의 《漢書》 등이 함께 전래하여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고 편찬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역사를 처음으로 기술하였을 때의 그 역사의 성격이 유학과 어떤 관련을 갖는냐 하는 문제는 고대 역사학의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고대의 역사기술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역사기술이 유학이 전래하기 전이거나 전래 후이거나 간에 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그 자료가 현재 남아 있지 않아서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단지 초기의 자료들을 이용한 후대의 역사서인 《三國史記》를 통하여 변형된 자료와 당시의 일부 금석문 자료 등을 통하여 유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3) 《舊唐書》 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高麗.

설령 역사와 유학의 상관관계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당시의 유학의 발달을 파악한다는 것은 당시의 역사 기록의 문화적·학술적 배경을 이해함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3. 삼국의 유학

유학이란 고대 중국인의 오랜 생활방식과 문화전통을 孔子와 孟子가 학문적인 체계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학은 유교라고도 부르지만 유학은 학문적인, 사상적인 것을 주목하여 지칭하는 것이고, 유교는 교화적·祭禮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개념상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⁴⁾ 그러나 그 사상적 내용은 같은 것이다.

이 시기의 유학의 전래는 토속적인 전통 생활방식과 구별되는 외래사상이었다. 우리 나라에 유학이 수용될 때에 수용계층이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반발이나 물의가 없이 순탄하게 하나의 고급문화의 수용으로 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유학은 우리 나라 역사와 시기를 거의 같이하면서 19세기 말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 점에서 유학은 우리 고유사상과 생활습관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외래문화 중 유학처럼 오랜동안 우리 생활을 규제하고 영향을 미친 사상도 드물다.

그러나 당시 유학은 불교나 기독교처럼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생활윤리였으므로 쉽게 적용될 수 있었고, 우리의 생활윤리 중에 유학의 근본 가르침과 공통된 부분이 유학전래 이전부터도 존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부모에 대한 효, 형제의 우애 등은 인간의 보편적인 덕목이 중국문화 수용 이전의 전통사회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즉 忠·孝·仁·義라는 덕목이 지목되고 규정된 것은 유학의 전래로 인하여 확인해진 것이지만 이런 덕목의 내용은 유학수용 이전의 우리 사회에서도 있어 왔던 것이지 새로이 창출된 개념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4) 李丙燾, 《韓國儒學史》(亞細亞文化社, 1987), 1쪽.

전통시대의 역사서를 통해 보면 箕子가 우리 나라에 와서 팔조의 금법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화가 시작되었다는 데에서 중국의 유학이 전래한 것으로 오랫동안 믿어져 왔다. 이 설에 따르면 殷나라의 현신인 기자가 은나라가 망하고 周나라가 건국되자 동쪽으로 우리 나라에 와서 고조선을 통치하였는데 주나라 武王은 그를 朝鮮侯에 책봉하여 한국의 유교문화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설은 고려조에 들어와서 유학이 발달하면서부터 그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중국문헌의 기록⁵⁾을 토대로 정립되어 평양에 기자의 사당을 짓고 이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이루어졌다. 그 후 조선조에 와서 기자의 東來說과 유교문화의 창시자로서의 위치는 더욱 확고하게 굳어졌다. 즉 고려 仁宗 23년(1145)에 편찬된 《삼국사기》로부터 조선 초기의 《高麗史》·《三國史節要》·《東國通鑑》, 조선 후기 安鼎福의 《東史綱目》에 이르기까지 이 설은 확고하게 서술되었다.⁶⁾ 나아가 기자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집대성되기에 이르렀다.⁷⁾

한국에 근대사학이 확립되어 기자가 동래하여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설이 제기된 후⁸⁾ 현재에는 기자의 동래설은 완전히 부정되기에 이르렀다.⁹⁾ 따라서 오늘날 기자의 동래설을 신봉하는 학자는 없다. 이는 토착민이었던 한씨조선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漢文化의 일부인 유학이 한국에 전래한 것은 秦漢交替의 혼란기에 중국측으로부터 밀려온 많은 유이민들을 통하여 한자문화의 전래와 함께 들

5) 이에는 세 종류의 중국문헌 기록이 바탕이 되었다. 즉 《尚書大傳》, 《史記》宋微子世家, 《漢書地理志》燕條의 기록을 들 수 있다.

6) 좀더 엄격하게 말하면 관찬사서로서 이 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1894년에 학부에서 편찬한 《東國史略》까지라고 할 수 있다.

7) 尹斗壽의 《箕子誌》와 李珣의 《箕子實記》 등이 그 대표적 저술이다. 그리고 평양을 방문한 많은 문인들이 이에 대한 시를 지었고 여러 사람의 칭송의 대상이 되었으며(海東樂府), 韓百謙은 기자의 井田遺制가 평양에 남아 있다는 설을 제기하였으나 崔錫鼎에 의하여 비판되었다.

8) 李丙燾, 〈「箕子朝鮮」의 正體와 소위 「箕子八條教」에 대한 新考察〉(《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47~56쪽 참조.

9) 李丙燾, 〈在來 所謂「箕子朝鮮」의 正體와 周圍 諸宗族 및 燕 秦 漢과의 關係〉(《韓國史》古代篇, 震檀學會, 1959), 92~114쪽.

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¹⁰⁾ 한사군이 설치된 후 이곳은 중국문화 수용의 기지였다.

고구려의 유학 : 고구려는 玄菟郡으로부터 관복과 衣幘을 받아오곤 하였으며¹¹⁾ 현도군이 축출된 후에는 평양지방에 설치되어 400여 년간 지속된 樂浪郡이 유학수용의 기지였다. 문자를 가진 중국문화는 종래의 우리 토착문화에 비하여 선진이었고 지배층의 권위를 확립함에 유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음부터 민간을 통하여 우리의 토착사회에 들어온 유학은 우리의 전통윤리와 문화를 승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학의 덕목 중 특히 왕에 대한 충성은 새로운 고대국가의 출현에 따른 덕목으로 국왕으로부터 특히 중시되었다.

유학이 삼국시대에 전래된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자료로는 고구려 小獸林王 2년(372)에 교육기관인 太學의 설치를 들 수 있다.¹²⁾ 태학에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고구려에서 교수된 유학의 자료는 5경과 《사기》·《한서》·《후한서》 등의 역사서가 아니었을까 한다. 또한 《孝經》과 《論語》 등도 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효경》과 《논어》는 漢대의 태학에서도 읽혔고 신라의 神文王대에 설치된 국학에서도 기초적으로 읽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周書》高麗傳¹³⁾과 《舊唐書》고려전에 5경과 《사기》·《한서》·《후한서》·《삼국지》, 孫盛의 《晉陽秋》 등이 고구려에서 애독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태학을 포함한 고구려 지식인층의 독서경향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5경은 한대에 박사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정비된 유학의 기본경전으로 《詩經》·《書

10) 郭信煥, 〈儒敎思想의 展開樣相과 生活世界〉(《韓國思想史大系》2—古代篇), 394쪽.

11) 《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 高句麗.

12)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소수림왕 2년.

13) 7세기 중엽에 편찬된 《周書》권 49, 東夷 高麗전에 고구려의 “서적에는 五經·3史·三國志·晉陽秋”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3史는 사마천의 《史記》, 반고의 《漢書》, 范曄의 《後漢書》를 지칭한다. 《晉陽秋》는 晉나라 孫盛이 편찬한 책으로 말과 논리가 바르어 良史로 평가되었으나 손성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개작하였다. 진나라 孝武帝代 太元년간(376~396)에 異聞을 널리 구하였는데 이 때 정본을 요동에서 구하여 이를 대조해 보니 상이함이 많아 두 본을 모두 전하였다(《晉書》권 82, 列傳 52, 孫盛)고 하나 현재는 逸書가 되었다. 이 요동은 고구려를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經》·《周易》·《春秋》·《禮記》를 지칭한다. 한나라에서는 5경박사제도를 두어 경전을 전공하는 학자가 양성되었다.

태학은 중국 한나라의 교육제도를 취해온 것이다. 또한 태학은 중앙의 교육기관으로 이곳에서 고관 귀족 자제들을 교육시켰다.¹⁴⁾ 그리고 이는 중급 이상의 고급단계의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었다. 그리고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扃堂이라는 교육제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① (고구려의) 풍속이 서적을 좋아하여, 누추한 집안으로 천역에 종사하는 집에 이르기까지 각각 큰 길가에 큰 집을 지어 扃堂이라 하고 자제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곳에서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혔다. 그 읽는 책에는 五經, 史記, 漢書, 范曄의 後漢書, 孫盛의 晉陽秋, 玉篇, 字通, 字林이 있고 또 文選이 있어 더욱 애지중지하였다(《舊唐書》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高麗).
- ② 사람들이 배우기를 좋아하여 궁벽한 마을의 가난한 집의 사람까지도 즐겨 힘썼다. 큰 길가에 모두 큰 집을 지어 이를 경당이라 불렀다.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이 무리지어 모여 경전을 외우고 활쏘기를 익혔다(《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高麗).

고구려의 경당이 언급된 자료는 ①과 ②뿐이다. 이 중에서도 ①의 자료가 더 자세하므로 이를 주로 인용되고 있다.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②의 자료는 ①의 자료를 가지고 표현을 달리한 것일 뿐 새로운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생각한다면 원 자료는 《구당서》 ①의 자료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흔히 지방의 평민자제들을 교육시킨 사립 교육기관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신라의 花郎과 같은 존재로 보는 설이 있다.¹⁵⁾ 이는 누추한 집에서 살며 천역을 하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결혼 전에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혔다는 표현에 근거한 것뿐이다. 특히 이 표현 중에 지방이라는 표현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사통팔달의 중심가(街衢)에는 큰 집을 지었다는 표현에서 오히려 이는 지방이라기보다는 수도의 중심가인 변화가를 연상케

14) 李文遠, 〈儒敎思想과 古代敎育—高句麗 扃堂의 敎育內容—〉(《韓國古代文化와 隣接文化와의 關係》,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466~470쪽. 여기서 한대의 태학의 성립과 그 후의 변화에 대하여 소상히 언급하고 있다.

15) 李基白, 〈高句麗의 扃堂—韓國古代國家에 있어서의 未成年集會의 一遺制〉(《歷史學報》35·36합집, 1967), 45~46쪽.

한다.¹⁶⁾ 즉 수도가 아니라면 이런 가구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경당은 지방이 아니라 중앙의 초급교육기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민의 자제들이라고 보는 것은 당시의 역사적 실상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수도에 사는 주민들의 청소년 자제들이라고 생각된다. 결혼하기 전의 미성년들이 수학한 곳임을 들어 부족국가시대에 청소년집회의 유제가 경당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¹⁷⁾

①의 사료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일반사람들이 책을 좋아했다는 점이다. 이는 ②의 자료에서는 사람들이 배우기를 좋아했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중국인들이 볼 때에 고구려는 외방인들이면서도 중국의 책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일찍부터 배워왔음을 특이한 것으로 보고 이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들 사서에 국립대학인 태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러나 고구려가 민간에서 낙랑을 통하여 또는 중국본토를 통하여 한자문화를 이미 익히고 있었으며, 이런 전제 위에 태학이 설립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당의 존재는 태학 이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한나라의 태학이 15세에서 18세의 학생을 교육시킨 점으로 미루어본다면 고구려의 태학도 결혼 후의 성년들의 고급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에서의 태학도 경당에서 결혼전에 교육을 받은 학생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고등교육을 시킨 것이 아닐가 한다.

그리고 누추한 집에 살면서 천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그들의 신분이라기보다는 가정은 비록 가난하면서도 공부에 열성적인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고구려의 최고 지배층을 이렇게 표현하였을 리는 없으므로 이를 신분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자제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신분을 일반 평민이라고 보는 것은 당시의 역사적 실상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들은 적어도 하급 지배층 이상의 자제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6) 李基白, 위의 글, 50쪽.

17) 李基白은 이 경당의 설치연대를 長壽王대로 추정하고 정복전쟁으로 지방민이 군사적으로 동원되던 상황에서 지방의 평민들의 자제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장수왕대라는 근거는 단지 추정에 불과하다(李基白, 위의 글, 52~53쪽).

①의 자료 중 나열된 책은 문맥으로 보아서는 ‘이곳(경당)에서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혔다’는 표현 중의 ‘책’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를 잘 음미하면 이는 경당에서 교육된 책이라기보다는 첫머리에 나오는 ‘풍속이 서적을 좋아하여’라는 구절의 ‘서적’을 말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즉 ① 자료의 마지막 표현인 ‘또 《文選》이 있어 더욱 애지중지하였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①의 인용문 첫머리의 ‘책을 좋아했다’는 표현은 고구려의 습속을 총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를 반드시 경당에서 읽힌 책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경당에서 교육된 내용은 활쏘기가 무예의 기초적인 훈련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문이나 유학교육도 《字通》이나 《字林》을 통한 문자교육과 유교경전의 초보적인 교육도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역사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경당에서 초급 또는 중급교육을 마친 사람 중 학문에 출중한 사람이 태학에 입학하였을 것이라는 것 또한 상정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학계의 통설로 이해되고 있는 지방의 평민 자제들을 교육시킨 곳이 경당이라는 해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당을 화랑제도와 흡사한 전사단체로 규정하여 왔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너무나 부족하다. 물론 고구려도 신라와 같은 단계의 고대국가이므로 유사한 사회단체로서 청소년집회인 화랑제도와 같은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신라의 화랑제도가 주로 왕경출신의 자제들이었음을 보더라도 고구려의 경당은 중앙 즉 수도의 청소년들의 초급 또는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초급 또는 중등교육을 위해 경당이라는 제도가 성립하게 된 것은 성년식을 치르기 전인 청소년들의 집회의 유산이 한자문화의 전래로 인하여 교육기관으로 발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무의 교육이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 국가적인 태학의 설치나 律令의 반포도 한자문화의 수용을 전제로 가능하였다고 본다. 율령이 실시되려면 이를 이해하는 국민이 다수였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자문화와 유학은 고구려의 경우 태학 설립보다 훨씬 이전에 수용된 것을 말해준다. 또한 한자문화의 전래는 역사의 기록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무렵 한자문화의 이해수

준을 장수왕 2년(414)에 세워진 〈廣開土大王陵碑〉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태학에는 오경과 역사서의 박사들이 학생들을 교수하였다고 이해된다. 이는 嬰陽王 때 태학박사 李文眞이 보이고 있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구려에서 유학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면서 태학은 얼마만큼의 유학적 소양을 갖춘 관리의 선발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태학에서 성적이 우수하다는 조건만으로 관리에 충원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가 부족장 중심의 귀족사회였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관리 중 실질적으로 태학출신이 임용된 사례를 문헌으로 입증할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관직체계에 「使者」의 명칭이 붙은 관직계열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太大使者·大使者·小使者·拔位使者 등은 원래 국왕이 능력있는 사람이나 공이 있는 사람을 임용함에서 유래된 관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유추에 의한다면 초기에는 단순한 능력의 검증이나 공로로 관리에 임용되었겠지만 태학이 설치된 후로는 여기서 발탁되어 임용된 관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당에서도 유능한 인물의 발탁이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金大問의 《花郎世紀》에서 ‘賢佐忠臣’과 ‘良將勇卒’이 화랑으로부터 나왔다는 표현은¹⁸⁾ 고구려의 경우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도 세습적 신분제가 강인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유학이 교육되고 학문적 능력을 쌓은 사람이 있어도 크게 발탁되지 못하였을 것임을 쉽게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고대국가에서 유학이 정치이념으로 실현되지 못한 사회적·정치적 배경이며, 고대국가의 공통적 통치력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중에서 「仁」·「忠」이란 유학적인 표현이나 문구가 나오고 있으나 이를 유학사상의 실현으로 보는 건해는 그대로 취할 수 없다. 이에는 엄정한 사료비판을 거쳐야 할 것이다. 즉 유학사상이 아니라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후대에 유학적 표현으로 바꿔 놓았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유학이 정치사상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광개토대왕릉비〉에 보이는 ‘以道興治’라는 표현이다. 광개토대왕은 그의 시조가 ‘天帝之子’이고 어머

18)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37년.

니는 ‘河伯女郎’이란 표현으로 선조의 출신의 신성함을 강조함이 표출되었으면서도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싣고 있지 않아 도의 내용이 비록 유학에서 말하는 도와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학적인 성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 鎮墓北壁墨書에서 장지의 선택과 장사날의 선택, 장사지내는 시간을 정함에 주공·공자·무왕의 권위를 빌리려함¹⁹⁾은 유학적인 소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남편의 상복제가 중국과 같이 3년복을 입었다는 것²⁰⁾은 의식에 있어서 유학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나라에서 정립된 오행사상도 전래 수용되었음이 고분벽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백제의 유학: 백제가 국가적 성립을 보기 전에 남한지역에는 馬韓이란 부족연맹체 사회가 있었고 마한에서는 이미 낙랑에 와서 印章(직함)과 관복을 받아간 족장들이 천 여명에 달하였다고 하는데²¹⁾ 이는 이미 마한사회에 중국의 한자문화가 전래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고조선의 통치권이 유이민인 衛滿에게 찬탈되자 그 일부가 마한지역으로 남하하였으므로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 받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백제는 마한 48국 중의 하나로 출발하여 마한을 통합하여 간 나라이다. 또한 백제는 고구려의 지배층이 유이하여 토착민을 지배하였다. 따라서 백제에서는 마한의 기층민들의 문화와 새로이 지배층으로 내려온 유이민의 문화적 기반이 합쳐졌다. 그 결과 백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전통을 가진 위에 부족적 기반이 고구려나 신라에 비하여 약하였으므로 이후 외래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었다. 그리고 백제는 낙랑과 대방으로부터 거리상으로 도 가까웠고, 해상활동이 활발하여 중국과의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가의 건국이 비록 고구려보다 늦게 출발하였으나 한문화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선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백제에서 유학을 교육하는 태학이 언제 설치

19) 천인석, 〈三國時代의 儒學思想〉(《韓國學論集》 21, 啓明大, 1994), 39쪽.

20) 《周書》 권 49, 列傳 41, 異域 上, 高麗.

《隋書》 권 81, 列傳 46, 東夷, 高麗.

21) 《三國志》 권 30, 魏書 30, 東夷, 韓.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율령이 반포된 고이왕대에는 이미 한자문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해되었으며, 고구려에서 율령의 반포와 태학의 설치에 때를 같이 하였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무렵 또는 그 후에 태학이 설치되었다고 생각한다. 백제에서 태학이 설치 운영되었다는 근거는 태학의 교수직인 박사의 명칭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近肖古王 30년(375)조에 박사 高興의 書記 편찬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그런데 이 기사가 근초고왕 30년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왕대의 일기기는 하나 어느 연대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왕의 마지막 해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다. 毗有王 24년(450) 송나라에서 《易林》과 《式占》을 들여와 실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역과 점이 중시되었다. 어쨌든 이 무렵에는 5경박사제가 설치되고 유학과 한문이 일본에 전해진 것²²⁾ 등은 백제 유교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慰禮城에 도움을 하였던 전기 백제시대에는 실생활 중심의 유학이 발달하였다.

백제가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패하여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이후 중국은 남북조시대로 백제는 남조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다. 즉 유려한 문체중심, 불교와 노장학이 가미된 유학이 백제에 수용되었다. 《周書》백제전에 의하면 풍속이 말타기와 활쏘기를 중히 여기며, 경전과 사서를 좋아하고 자못 한문 글을 지을 줄 알고, 음양오행을 이해하고 송의 원가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서술하여 중국과의 교섭을 통하여 중국문화를 활발히 수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부모와 남편의 상에는 3년복을 입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聖王 12년(534)과 18년에는 백제에서 양나라에 《涅槃經》 등의 經義와 毛詩博士, 工匠과 畫師를 보내줄 것을 청하여 이들을 받았다.²³⁾ 또한 의약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점술에 능하였다고 한다.²⁴⁾ 武寧王의 묘지석의 기록은 당시 백제의 유

22) 왕인박사가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가서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日本書紀》권 17, 繼體紀 7년조에 백제에서 五經博士 段陽爾를 보냈다는 기록과 3년 후에는 高安茂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권 19, 欽明紀 14년조에 일본에서 醫博士·易博士·曆博士의 파견을 요청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李弘植, 〈日本에 傳授된 百濟文化〉(《韓國古代史의 研究》, 1971) 및 李丙燾, 〈百濟의 學術 및 技術의 日本傳播〉(《百濟研究》2, 忠南大, 1971) 참조.

23) 《南史》권 79, 列傳 69, 東夷, 百濟.

24) 《隋書》권 81, 列傳 46, 東夷, 百濟.

교문화 및 한자문화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불교와 노장사상이 가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록이다. 즉 무덤은 연꽃이 장식된 벽돌로 축조되었고 買地券은 노장사상이 가미된 토속신앙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석문은 유학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이 무렵 백제에서는 양나라에 講禮박사를 청하여 이를 받아들였다.²⁵⁾

백제 말기에 살았고 백제가 멸망하자 부흥운동을 일으키다가 뒤에 당나라에 귀화하여 중국의 관인이 되었던 黑齒常之의 묘지명에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춘추좌전》과 《사기》·《한서》 등을 읽었다고 하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백제 관료들의 학문성향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신라의 유학: 신라는 한반도의 귀퉁이에 위치하여 한자문화를 포함하여 중국문화의 전래가 초기 고구려를 통하여 들어왔다. 또한 국가의 성장단계도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여 뒤늦게 발전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라는 이처럼 외래문화를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뒤늦게 받아들였으나 전통사회의 윤리와 습속을 승화시킴으로써 공동체의식을 잃지 않았고 이는 삼국을 통일하는 문화적·사회적 저력이 되었다.

5~6세기에 만들어진 비석이 최근에 발견됨으로써²⁶⁾ 신라시대 한자문화의 이해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에서 한강유역을 점유한 진흥왕대부터는 중국의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는 비단 유학만이 아니라 불교의 수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었다. 불법을 배우러 가는 유학승들에 의하여 초기 유학이 전래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유학과 전통윤리·불교윤리가 통합된 것을 화랑도가 지켜야할 덕목으로 제시한 圓光의 世俗五戒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事君以忠·事親以孝·交友有信·任戰無退·殺生有擇에서 종래 앞의 세 덕목은 유교적인 것이라 하여 의심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사군이충은 유교적 덕목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친이효와 교우유신도 표현상으로만 보면 유교덕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전통사회에서 있어온 덕목을 한자로 표현한 것

25) 천인석, 앞의 글, 41쪽.

26) 5세기말에 세워진 것으로 이해되는 〈迎日冷水里新羅碑〉와 6세기 초반의 〈蔚珍鳳坪新羅碑〉를 들 수 있다.

일 뿐이고 이를 새로이 생긴 도덕관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임전무퇴는 당시의 정치사회상으로부터 요구되는 덕목이고, 살생유택은 농업사회의 전통을 반영한 덕목으로 이해되고 있으면서 불교적인 성향이 짙게 깔려 있어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

신라에서의 국가적인 교육제도가 확립된 것은 삼국통일 후인 신문왕대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유학을 공부하는 분위기는 있었다. 이는 1934년에 발견된 〈壬申誓記石〉의 내용에서 신라인의 유학사상의 일단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임신년은 眞興王 13년(552), 眞平王 34년(612), 문무왕 12년(672), 聖德王 31년(732)으로 어느 해인지를 확정지을 단서는 없다. 두 화랑이 서로 약속한 내용 중에 “충도를 執持하여 이에 과실이 없기를 하늘에 맹서하며, 이를 어기면 하늘로부터 대죄를 받을 것을 크게 서약하고, 만약 나라가 불안하여 크게 세상이 어려워지면 충성을 바칠 것을 맹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바로 전해(신미년)에 약속한 詩·尙書·禮·傳을 3년 안에 차례로 습득하기로 맹서하였다. 이 내용과 시대상황으로 보아 임신년은 진평왕 34년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고졸한 필체가 또한 이 시기의 유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하여 신라에서 화랑들이 유교경전의 습득을 열심히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의 시는 《詩經》, 상서는 《書經》, 예는 《禮記》, 전은 《左氏傳》이나 《公羊傳》·《穀梁傳》의 하나일 것이나 《좌씨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흥왕 29년(568)에 세워진 진흥왕순수비에는 “이리하여 제왕은 연호를 세우고 자기를 수양함으로써 백성을 편하게 하지 않음이 없었다”는 《論語》에서 인용한 표현과 “兢身自愼 恐違乾道”라는 표현은 유학적 사고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強首는 통일 전에 이미 《孝經》·《爾雅》·《曲禮》·《文選》을 스승으로부터 배웠다는 점²⁷⁾에서 신라인들의 유학적 소양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인들의 유학에 대한 공부는 眞德王 5년(651)에 있었던 김인문 등이 당나라에 가서 숙위학생으로 국학에 들어가 공부한 것이 遣唐留學生의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는 이후 통일신라의 학문의 발전을 가

27) 《三國史記》 권 46, 列傳 6, 強首.

저오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요컨대 삼국시대의 유학은 한문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되었고 그 내용 중 일부가 당시의 정치와 사회에 수용되었다. 이때의 유학은 전통적인 우리 문화의 저변에서 시행되던 덕목과 관련된 것이 유학적으로 승화 표현되었다. 따라서 아직 유학은 역사의 기록이나 역사관을 규정할 정도로 이념적 가치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삼국시대에 전래한 유학은 어떤 성격의 유학이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에서 우선 한문에 대한 이해와 명문의 외교문서를 쓰기 위하여 유학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이는 삼국이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중국세력과 외교관계를 잘 유지함은 국내정치만이 아니라 국제정세를 자국에 유리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었다. 다음은 영토를 확장하고 새로운 인민을 국민으로 흡수하면서 왕에 대한 국민의 충성심의 고양은 고대국가가 발전함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과제였다. 이를 위하여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학이 실질적으로 중요시되었다. 그러면서도 이는 군주가 백성생활을 안정되게 다스려야 한다는 인식을 낳게 하였다. 이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띠게 되었다. 아직 유학이 가족윤리를 규제하거나 실생활에 필요한 덕목으로 정착하기에는 더 급하고 긴요한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 유학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교화는 불교가 담당하고 있었던 고대국가의 상황에서 유학이 사회의 교화사상으로 작용함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개인적 인격자를 유학을 통하여 기른다는 것도 그리 크게 작용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고대국가의 유학은 지배층 특히 국왕의 현실적 필요성에서 장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국의 유학은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국가를 형성하는 학문적 기반을 이룩하였다. 이는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을 통하여 학문과 기술이 일본에 전파되었으나 특히 백제의 영향력이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⁸⁾

28) 李弘植, <日本에 傳授된 百濟文化> (《韓國思想》 9, 1958 ;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李丙燾, 앞의 글(1971).

金廷鶴, <古代의 韓日關係> (《韓國古代文化와 隣接文化와의 關係》).

4. 삼국의 역사편찬

역사편찬에서 사건의 기록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학계에서는 삼국의 역사편찬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사건의 기록을 남김에 대하여는 관심이 소홀하였다고 생각한다.²⁹⁾

1) 고구려

삼국 중 가장 먼저 한자문화를 수용하고 선진문화를 이룩한 고구려에서 역사편찬도 제일 먼저 시작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헌기록은 영양왕 11년(628)조에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太學博士 李文眞에게 명하여 古史를 줄여 新集 5권을 만들게 하였다. 國初에 문자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어느 사람이 일을 기록하였는데 그 양이 100권이었고 그 이름을 留記라 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줄이고 다듬었다(《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이 기록에 대하여 종래의 학설은 《留記》가 편찬되었다는 전제하에 국초가 언제나 하는 데에 주로 관심이 두어졌다. 즉 이를 문자 그대로 국초로 보아야 한다는 설³⁰⁾과 태학이라는 교육제도가 확립되었고 율령제가 반포되었으

29) 삼국의 역사편찬에 대한 종래의 연구에 대한 소개와 정리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李基東, 〈古代國家의 歷史認識〉(《韓國史論》 6, 國史編纂委員會, 1979).

——, 〈古代의 歷史認識〉(《韓國의 歷史家와 歷史學》 上, 창작과비평사, 1994).

——, 〈古代의 歷史認識〉(《韓國史學史研究》,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 1, 1997).

趙仁成,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歷史敍述〉(《韓國史學史의 研究》, 韓國史研究會, 1985).

단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30) 이는 李佑成의 견해이다(李基白 외, 《한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삼성문화문고 88, 1976).

며 불교수용이 이루어진 소수림왕대를 주목한 설³¹⁾이 있다. 앞으로 살펴볼 백제와 신라에서의 역사편찬 분위기를 고려하면 소수림왕대설이 일견 타당한 듯하다.

그러나 위의 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중요점을 중심으로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는 설이 제기되었다.³²⁾ 즉 100권이라는 거대한 저술이 한 사람에게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유기’라는 말의 뜻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위의 원문을 ‘국초에 처음 문자를 사용할 때에 어느 사람이 일을 기록하였는 데 (그것이 쌓여) 100권에 이르렀다.’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남겨진 기록’³³⁾이라는 뜻에서 이를 유기라고 불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유기라는 용어가 새로이 편찬된 역사서의 이름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점³⁴⁾을 고려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국초로부터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기록되어 쌓인 자료가 100권에 이르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집을 편찬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보충하였다고 기록하지 않고 이를 줄여서 편찬하였다는 표현은 이 책의 편찬 직전까지의 내용을 유기가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에서 한자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긴 것은 태조 46년(A.D. 98)에 왕이 동쪽에 있었던 柵城에 순수하여 흰 사슴을 잡고 군신과 연회를 가진 후 산의 바위에 功을 기록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이 태조의 巡狩紀功碑는 비록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후일 신라 진흥왕순수비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며 고구려에서의 한자사용은 이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역사기록이 국초부터 있었다는 것은 태조 무렵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의 역사기록이 이처럼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체계없이 기록된 것

31) 李基白 외, 위의 책, 4쪽.

32) 鄭求福, 〈傳統的 歷史意識과 歷史敘述〉(《韓國學入門》, 學術院, 1983), 82~83쪽.

33) 李佑成은 이를 전승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이미 피력한 바 있다(李基白 외, 앞의 책, 15쪽).

34) 이는 편찬된 역사책의 이름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설이 高柄翊에 의하여 제기된 바 있는데 이는 경청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한다(李基白 외, 위의 책, 14~15쪽).

35) 《三國史記》 권 15, 高句麗本紀 3, 태조대왕 46년.

이고 그 분량이 100권에 이르렀다면 고구려에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신라나 백제와 같이 역사를 편찬하는 작업이 없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하여 계획적인 역사편찬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신라의 국사편찬이나 백제의 서기도 이런 유기와 같이 기록을 남긴다는 뜻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현재까지의 연구나 저술에서는 소홀히 한 감이 있다. 방대한 자료이고 일정한 체계로 정리되지 않은 유기라는 자료를 태학의 교재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태학의 국사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5권의 신집으로 정리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의 역사기록은 《삼국사기》를 통하여 전래되고 있을 뿐 원래의 기록 자체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대에 발견된 금석문은 그들의 역사기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대표적인 자료로서는 광개토대왕릉의 비문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역사기록의 내용과 고구려의 역사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성을 들 수 있다. 고구려 역사는 天帝의 후손이 지배하며 항상 하늘님의 후원을 받으며 왕이 죽은 후에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은택이 사해에 퍼지고 九夷를 제압하였다는 표현에서 고구려 중심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또한 고구려는 신라와 백제·부여 등의 조공을 받는 중화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세웠고 대왕이라는 칭호를 가졌다. 太王 또는 大王이라 함은 「王中王」이라는 뜻으로 비록 황제라는 용어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대왕이라는 칭호는 황제라는 칭호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존성은 비록 시기의 선후는 있지만 고구려만이 아니라 백제나 신라·燕·일본까지도 공통적인 고대문화의 특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 비문을 통하여 당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영토를 확장하는 정복전쟁이었음을 광개토대왕이 격파하여 점령한 성과 마을을 상세히 기록한 부분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정복전쟁은 자국의 발전을 위하여

36) 梁起錫, <4~5C 高句麗 王者의 天下觀에 對하여> (《湖西史學》 11, 1983).

盧泰敦,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의 天下觀> (《韓國史論》 19, 서울대, 1988).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시대적 과업이었다. 이러한 정복전쟁의 승리는 왕권의 강화를 가져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대왕의 업적을 왕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시조로부터 물려받은 천손족의 후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비문에는 守墓人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적고 있다. 수묘인을 고구려 원주민인 舊民과 새로이 포로로 잡아온 新民을 섞어서 편성하면서 구민은 곧 연약해질 것이라고 한 점을 통하여 새로운 활력소로서 새로운 백성을 영입하였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구민이 곧 연약해질 것이라는 내용은 수묘인이 묘를 청소하고 지키는 데에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새로운 백성은 근면하고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로써 고대국가가 발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정복한 자를 적극적으로 자국의 백성화하는 데에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신라 진흥왕순수비에도 보이고 있다.

넷째 이 비문에서 보면 광개토대왕의 묘에 비석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선대의 모든 왕들의 묘에 묘비를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한 수묘인을 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先代 왕들의 묘소를 존중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이 비문은 한문학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한문 구사는 고구려에서 역사기록을 남길 수 있었음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이런 〈광개토대왕릉비〉의 주 내용이 유기 100권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2) 백 제

백제에서의 역사편찬 기록은 《三國史記》권 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조의 薨年기사 뒤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古記에 이르기를 “백제는 開國한 이래 일찍이 문자로 일을 기록한 일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博士 高興을 얻어 비로소 書記를 갖게 되었다 하였다.

그러나 고흥은 일찍이 다른 책에 보이지 않음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다.

우선 이 기사가 근초고왕의 졸년기사 뒤에 쓰였다는 것은 이 기사의 내용이 근초고왕(346~374) 때 있었던 일이지만 어느 해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는 학자들이 종종 근초고왕 30년의 일로 이 기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개국이래 문자로 역사를 기록해 둬 없었는데 이 때에 와서 박사 고흥이 비로소 《書記》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여 역사편찬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비로소 서기를 갖게 되었다’를 역사편찬으로 보지 않고 이를 역사기록의 시작으로 보는 설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는 역사편찬으로 이해하고 있다.³⁷⁾ 고흥이라는 사람이 보이는 점으로 이를 단순히 역사기록의 시작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견해가 아직까지 국가에서 역사를 기록 편찬한 일이 없었는데 이 때에 와서 자료를 모아 역사를 편찬하고 이후에 역사기록을 남기게 되었다고 종합될 수 있다.

백제의 지배집단은 고구려로부터 갈려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낙랑·대방과 밀접한 교류를 한 점으로 보아 백제에서의 한자의 사용은 국초로부터라고 생각된다. 또한 古尔王대에는 율령이 반포되었고 근초고왕 27년(372) 및 28년에는 남쪽의 東晉에 사신을 보내 문물을 교류하였으므로 이 무렵 한문화의 수용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즉 이 무렵에는 역사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하였다 하겠다. 또한 이 기록을 전하고 있는 고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는 《삼국사기》·《삼국유사》 등에 많이 등장하는 고기류의 하나로 생각된다.³⁸⁾ 앞에서 인용한 《삼국사기》의 기록 중 ‘고기에 이르기를’이라는 내용은 ‘비로소 서기를 갖게 되었다’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문장은 《삼국사기》 편찬자의 기술일 것으로 생각된다. 고흥을 박사라고 한 것은 오경박사 중의 하나일 것이다.

37) 吳恒寧, 〈史官制度의 成立史의 提問〉(《泰東古典研究》 14, 1997), 20쪽의 글에서 ‘未有以文字記事’를 역사를 기록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38) 李基東, 앞의 글(1994), 31쪽.

또한 《書記》라는 책은 비록 《日本書紀》에 인용되지 않았으나 ‘記’자와 ‘紀’자는 상통하는 글자이므로 《일본서기》라는 명칭도 이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서기》에 주로 인용된 역사서로는 《百濟記》·《百濟新撰》·《百濟本紀》 세 가지 사서가 나오고 있다. 이를 국내학자들은 僞書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나 비록 《일본서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윤색·변형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명과 인명, 백제왕 관계의 기술 등에 있어서 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백제기》는 神功記로부터 雄略記에까지 인용되어 있고, 다른 내용은 근초고왕대로부터 개로왕대 즉 한성시대 말기의 백제사가 언급되어 있으나 윤색이 가장 심하게 되어 있다. 《백제신찬》은 웅략기에 세번 인용되어 있으며 무령왕의 계보가 《삼국사기》와 차이가 있는데,³⁹⁾ 이는 무령왕릉지석이 발견됨으로써 《백제신찬》의 왕실계보가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무령왕은 동성왕이 아들이라는 《삼국사기》 기록보다는 이복형제라는 설이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⁴⁰⁾ 《백제본기》는 繼體記로부터 欽明記에 가장 많이 인용된 자료로서 가야지방을 중심으로 한 백제·가야·신라의 관계가 상세히 언급되어 있으나 임나일본부라는 허위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 3서의 내용이 많이 윤색·왜곡되어 기술되어 있고, 《일본서기》의 기록 자체가 사료로서의 가치가 극히 빈약한 것이지만 이에 인용된 3서의 내용 가운데에는 《삼국사기》를 보완할 수 있는 인명·지명·왕실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3서의 존재는 백제에서 근초고왕대의 서기 편찬 이후에 역사편찬이 계속적으로 있었음을 반증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제에서는 금석문이 고구려·신라에 비하여 발견된 예가 극히 드물다. 그러나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왕과 왕비의 誌石과 買地券은 백제의 역사의식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왕의 칭호에서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이라 칭한 점에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었음을 확인

39) 李根雨,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4), 17~18쪽 참조.

40)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の 檢討〉(《韓國史研究》 45, 1984), 15~19쪽.

할 수 있다. 왕호는 당시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당시 우리 나라의 왕호에 대한 관습의 일면을 알 수 있다.⁴¹⁾ 비록 대왕이라는 칭호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중국 황제만이 사용하는 「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서 백제의 자존적인 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또 年代을 표시한 경우 干支로 기록하였다. 이는 역사기록에서도 간지로 표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백제의 왕실에서는 假埋葬制와 三年喪制가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국제도의 수용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습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령왕 자신이 地神으로부터 자기의 자리를 돈을 주고 사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시신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횡혈식 고분의 구조로부터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고구려왕실의 관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3) 신라

신라에서는 진흥왕 6년(545)에 이찬 異斯夫의 건의에 의하여 대아찬 居柒夫로 하여금 문사를 모아 國史를 수찬하게 하였다. 이사부가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伊淦 異斯夫가 아뢰기를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의 善惡을 기록하여 萬代에 褒貶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를 수찬하지 않는다면 후대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였다(《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6년).

이사부가 아뢴 국사편찬의 목적은 자못 미화된 듯한 감이 없지 않다. 당시 역사기록에서 포폄이라는 것이 과연 강조되었을까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사편찬에 대한 건의를 왕이 받아들여 편찬을 곧바로 명하였다고 하나 이는 진흥왕 자신의 결정이라 할 수 없다. 진흥왕은 7살에 즉위하여 왕태후가 섭정하였으며 즉위 12년 즉 開國이라는 연호를 정한 해부터 친정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왕태후는 법흥왕의 비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41) 이런 예는 신라에도 보이고 있으니 眞興王巡狩碑에도 眞興太王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황초령순수비 및 마운령순수비 참조).

있으나⁴²⁾ 진흥왕의 어머니인 법흥왕의 딸로 보는 견해도 있다.⁴³⁾ 이사부는 법흥왕대의 중신이었고 진흥왕 2년(515)에 병부령으로 군사권을 장악하였던 중신이었다.

이사부의 이 건의에 의하여 대아찬 거칠부에게 이를 편찬토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글을 아는 문사를 널리 구하여 편찬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로 波珍湊에 승진하게 되었다.⁴⁴⁾

국사편찬을 건의한 이사부가 신라 중시조로 이해되고 있는 내물왕의 4세손이고 그 편찬을 담당한 거칠부는 내물왕의 5세손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제도문물의 정비에 현재의 김씨왕실의 정통성을 천명하고 나아가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하여 왕자의 위엄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성격의 것이었다.⁴⁵⁾ 이는 진흥왕 29년(568)에 세워진 순수비에서 태조의 기반을 이어 받았다고 함에서 태조가 내물왕인지 지증왕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씨왕통을 밝혀 이를 강조하려 하였다는 점은 이를 통하여서도 보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진흥대의 국사편찬은 지증왕·법흥왕대의 성공적인 정복전쟁의 승리와 불교공인을 통한 호국의지의 강화, 대왕제의 실시, 독자적인 연호의 사용 등 중요한 정치적 업적을 기술할 목적이 주였다고 할 수 있다.⁴⁶⁾ 정복전쟁은 당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과업이었고 이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이 칭찬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판되었을 것이다. 위에 인용한 사료에서의 포폄은 이를 주로 뜻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진흥왕의 순수비에는 영토의 확장, 새로이 편입된 사람을 국민으로 만들려는 의식, 고유한 정치사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흥왕 12년(551) 경에 세워진 〈丹陽赤城碑〉에서는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의 포상조처와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하는 규정을 찾을 수 있어 정복전쟁의 기반조성을 위해 치밀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운령비와 함흥에 세워진 황초령비에는 도교적인 색채도 보이고, 天道 및 鬼神思想 및 외국과의

42)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乙酉文化社, 1987), 56쪽.

43) 鄭求福 외, 《譯註三國史記》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12쪽 주 75 참조.

44) 《三國史記》권 44, 列傳 4, 居柒夫傳에는 좀더 자세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45) 李基東, 〈古代의 歷史認識〉(《韓國의 歷史家와 歷史學》上, 1994), 33~35쪽.

46) 申澄植, 〈新羅人の 歷史認識과 國史編纂〉(《統一新羅史研究》, 삼지원, 1990), 208쪽.

和平사상도 보이고 있으며, 군주의 修己治人思想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에는 <광개토대왕릉비>에 보이는 ‘新古黎庶’라 하여 전부터의 백성은 물론 새로이 편입된 백성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바친 사람의 공훈을 포상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 금석문은 이 무렵의 한문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삼국의 역사, 삼국의 역사책들이 갖는 성격은 개별적으로 다른 점도 있을 것이나 자국의 역사를 기록 편찬함으로써 왕계의 신성성, 왕의 훌륭한 정치적 업적, 신하의 충성 등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왕의 정치적 업적으로는 정복전쟁의 승리가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을 특별히 강조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삼국의 역사에서는 자기의 역사가 지상에서 최고라는 자존의식이 강하였다고 이해된다. 또한 이런 의식의 기초위에 편찬된 역사서는 단순한 자존의식의 표출만이 아니라 자기 문화를 계승하는 기반을 굳건하게 다지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에서의 역사편찬은 이후 역사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당대의 기록을 상세히 남기는 史官제도의 발달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삼국사기》에 태종무열왕 7년조 기사에서부터는 종전의 월만을 표기하던 것을 날짜까지 표기하는 상세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제도화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삼국의 역사편찬이 비록 유학의 발달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유학적 이해가 풍부해지면서 역사편찬이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학에서는 문학과 경전, 그리고 역사를 소중한 학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鄭求福〉